

## Internet Home page를 통한 위암에 관한 질의 분석

<sup>1</sup>포천중문의과대학 외과학교실, <sup>2</sup>분당 재생병원 외과 <sup>3</sup>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안대호<sup>1</sup>, 신동우<sup>2</sup>, 정재호<sup>3</sup>, 형우진<sup>3</sup>, 최승호<sup>3</sup>, 노성훈<sup>3</sup>

**(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위암에 관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하고 제한된 internet의 역할 때문에 많은 위암환자나 보호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서 근거가 부족한 민간요법이나 낭설에 현혹되어 치료시기를 놓치며 개인적 또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위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분석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암관련 Internet Home Page의 결과를 통하여 위암환자나 보호자들의 위암에 관한 지식수준, 관심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연세위암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암관련 internet home page (www.gastriccancer.co.kr) 의 질의 836건 중에서 위암과 관련이 있는 543건을 분석하였다. 질의 내용과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를 공통된 category로 분류하지 못하였으며 한 질의 자가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만을 통계처리 하였다.

**(결과)** 543건의 내용별 빈도는 1위가 치료에 관한 질의로 318건, 2위는 예후 92건, 3위는 증상 37건, 4위는 원인 및 병태 25건, 5위는 진단 과정 7건이었으며 기타 56건이 있었다. 치료와 관련된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술과 관련된 질의가 110건이었고 그 중 수술가능성: 54, 후유증: 44, 초기합병증: 12, 항암치료관련 질의 98건 중 부작용: 27, 필요성: 19, 효능: 17, 항암치료 중 한약이나 특별한 음식섭취 가능여부: 8, 항암제와 관련된 기타질의: 27건이었으며, 기타 치료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EMR: 3건, 복강경수술: 1건이 있었다. 원인 및 병태에 관한 질의 중 원인: 13, 발병 및 진행기간 12건이 있었으며 기타 질의 중에는 일상생활의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 치료비, 용어설명 등이 있었다. 치료내용에 따른 다빈도 질의 상위 1, 2위를 보면 진단 후 수술 전 질의 140건 중에서 1, 2위는 각각 예후: 32, 수술가능성: 31, 절제수술 후 1개월 이내의 질의 97건 중 1, 2위는 각각 항암치료: 24, 예후: 23건, 절제수술 후 1개월~1년의 질의 115건 중 1, 2위는 각각 항암치료: 30, 수술후유증: 25, 절제수술 후 1년 이후의 질의 31건 중 1, 2위는 각각 예후: 7, 후유증: 5, 수술불가능, 절제불능 또는 절제 후 재발된 경우의 질의 89건 중 1, 2위는 각각 말기치료: 29, 항암치료: 19이었으며 그 외 주치의의 설명부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경우가 14건 있었다.

**(결론)** 질의 내용들은 대개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분석결과는 예상을 벗어난 것들도 있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질의도 있었다. 학회, 의료기관, 공공기관 및 internet과 같은 매체의 확장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